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34 (갈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512 (주여 우리는 지금)	159 (세상의 참된 행복)	6 (찬미 노래 부르며)

제 1독서 | 열왕기(상) 19,4-8

<엘리아는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의 산에 이르렀다.>

화답송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좌)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사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우)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좌)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우)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제 2독서 | 에페소서 4,30—5,2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6,41-51

영성체 후 묵상 |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성령의 인장을 받은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Today's Gospel, <John 6,41-51>

The Jews were complaining to each other about Jesus, because he had said, 'I am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Surely this is Jesus son of Joseph' they said. 'We know his father and mother. How can he now say, "I have come down from heaven"?' Jesus said in reply, 'Stop complaining to each other.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he is drawn by the Father who sent m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They will all be taught by God, and to hear the teaching of the Father, and learn from it, is to come to me.

Not that anybody has seen the Father, except the one who comes from God: he has seen the Father. I tell you most solemnly, everybody who believes has eternal life.

'I am the bread of life. Your fathers ate the manna in the desert and they are dead; but this is the bread that comes down from heaven, so that a man may eat it and not die. I am the living bread which has come down from heaven. Anyone who eats this bread will live for ever; and the bread that I shall give is my flesh, for the life of the world.'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교부들의 성경주해> - 새로운 영적 음식

선하시며 사랑이 가득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을 비처럼 내려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이 선한 이들의 영적 양식이 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녀들이 자라는 데 모자라는 것이 없도록 당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넘치도록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것과 육의 부패, 곧 옛 음식을 내던지고 대신 완전히 새로운 음식,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 안에 숨어계시도록 그분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원자께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육의 병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공동선에 봉사하는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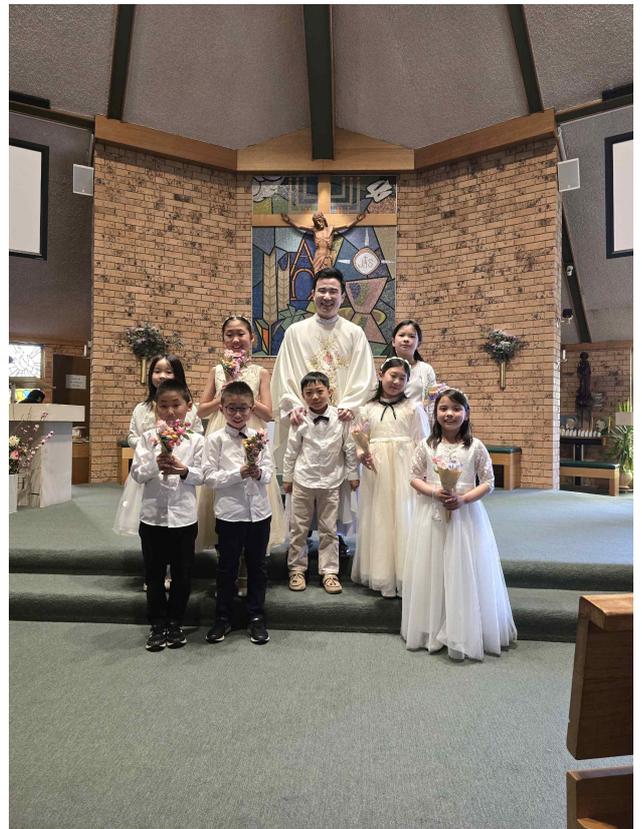


기도지향과 관련한 교황님 메시지

“오늘날 정치에 대한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죠. 부패, 추문 등 사람들의 일상과 동떨어진 모습이 많죠. 하지만 좋은 정치 없이 보편적 형제애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정치가 가장 고귀한 형태의 사랑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저는 한낱 ‘정치놀이’가 아니라, 진짜 ‘정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긴 복도가 있는 웅장한 건물에 틀어박힌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출근할 곳이 없어 주일을 슬프게 보내는 실직자들의 곤경을 잘 알고 걱정하는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귀합니다. 공동선을 위해 권력욕이 아닌 봉사 정신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온전한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실직자들을 보살피면서 국민을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Congratulations
on your First Holy Communion.
May the blessings of Christ
be upon you always!

‘구진표, 구규린, 박유비, 박태오,
박리암, 정유라, 김제인, 김다니엘’



공지 사항

1. 대전교구 손님 신부님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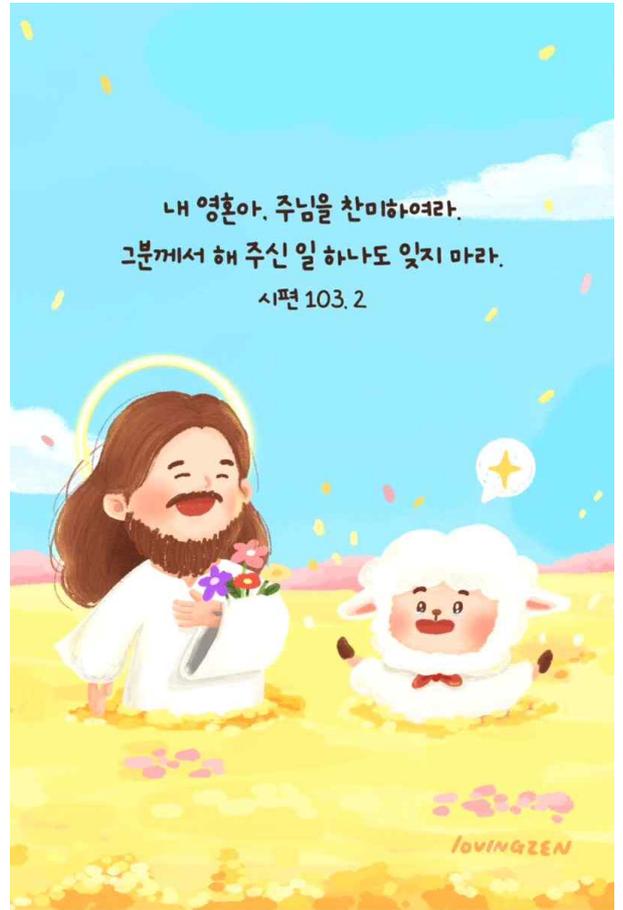
우리 한인성당 공동체를 방문해주신 '최승범 베드로, 김솔 노엘, 서석빈 다니엘' 신부님들 환영합니다!

2. 성모 승천 대축일 한인 미사 안내

- 일시: 8월 15일(목), 저녁 7시 미사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는 가톨릭 교회의 의무대축일 (Holy day of Obligation)입니다. 한인 미사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거주지 근처의 로컬 성당 미사에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견진성사 신청 안내

- * 신청 기한: 8월 25일까지
- * 교리 일정: 9월 1일부터, 매 주일 13:00~ 14:20
- * 견진성사 일시: 9월 29일(주일), 오후 3시 미사 중
- * 견진성사는 12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7월 28일	유아·청소년: 29명	성인: 56명
8월 4일	유아·청소년: 31명	성인: 70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8월 11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다음주 (8월 18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8월 11일)	루카반
다음주 (8월 18일)	마르코반

| 우리들의 정성 | (8월 3일 ~ 8월 9일)

봉 헌 금	\$517			
교 무 금	\$920			
강원혜	권모순	김요한	김정수	김천주
남궁영근	서진원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이재희	장호훈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황병욱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